

해방기의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

-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 대하여-

김주리*

<차례>

1. 서론
2. 해방기의 표정-‘아버지’에 대한 계승과 결별
3. 전문기술자 남성의 변모와 연애의 의미
4. 여성 교양인의 운명-비판하는 여성의 타락과 실천하는 여성의 맹목성
5. 결론

<국문초록>

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는 파시즘(전쟁)과 해방이라는 혼란 속에서 긍정적인 인간상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주인공의 교양과 실천이 가진 의미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두 텍스트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교양인으로서 친일 군수재벌의 딸 이경희와 해외 독립운동가의 딸 박문경이 일제 말기와 해방 직후 상황에서 보여주는 사적 연애와 공적 실천이 가진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주인공 이경희의 연애는 친일 군수재벌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거부보다는 허무주의에 빠진 남성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계몽이라는 성격을 내포한다. 반면 <1945년 8.15>에서 주인공 박문경의 연애는 주의자 애인의 세계관을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세계와 단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소설에서 여성 교양인의 연애 대상으로 선택된

* 한밭대 교양학부 교수

기술전문가 남성들은 기술자인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대해 일정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해방기를 맞이하며 직업 기술의 세계로부터 멀어진다. 이와 함께 김광호는 아내의 공적 열정을 억압하는 가부장으로, 김지원은 애인의 사적 욕망을 거세하는 가부장으로 형상화된다. <1945년 8.15>에서 경희의 공적 열정이 사적 행동으로 변화하고 문경의 사적 욕망이 공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경희의 비판적 교양은 타락한 것으로 발견되고 문경의 교양은 순응적인 것이 되고 만다. 공적 열정(사명)과 사적 욕망(연애)은 해방기 여성 교양인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욕망을 품은 교양인 여성은 해체되고, 타락하거나 무성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핵심어: 여성 교양인, 해방기, 기술자와 주의자, 공적 열정(사명), 사적 욕망(연애)

1. 서론

김남천의 <1945년 8.15>는 <자유신문> 창간기념으로 1945년 10월 15일부터 1946년 6월 28일까지 165회로 연재되다 중단된, 해방 이후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연재 예고에서는 “새 세대는 새로운 문학의 건설을 요구한다. 소설 『1945년 8.15』는 이러한 요청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의 생활기록이요 사상고백”¹⁾이라며, 새로운 시대 젊은이들의 생활과 사상 기록을 통해 그들의 정열과 감정이 향하는 곳, 약동하는 역사가 향하는 곳에 대한 전망을 밝히겠다는 포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은 1939년 <조선일보> 연재소설 <사랑의 수족관>의 후편이다. 이경희, 김광호, 이신국 등 <사랑의 수족관>의 주요인물들이 성격이나 지위 그대로 묘사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박문경, 무경 남매, 문경의 연인 김지원 등이 등장하여 그들과 일정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김남천, 『1945년 8.15』, 도서출판 작가들, 2007, 7쪽. (이후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함.)

기존 연구사에서는 해방 이전과 이후 작가의식의 단절을 강조하는 경우와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우로 나뉘어 두 텍스트의 관련성을 살피고 있다. 해방 이후 김남천이 식민지 시기의 풍속 문학과 관찰 문학에서 벗어나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에 입각해 역사적 전망을 그리려 했다는 것이 전자의 해석이라면,²⁾ 후자의 경우에는 진보적 리얼리즘 자체가 발자크적 리얼리즘, 관찰의 정신과 다르지 않기에 <1945년 8.15>가 <사랑의 수족관>이 보여주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³⁾ 두 소설에는 속물 자본주의에 대한 김남천의 비판정신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며, 전편과 후편에 그려지는 인물들의 변화는 그들이 처한 입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에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전문기술자 남성과 지식 교양인 여성의 연애라는 표층 서사보다 김남천의 창작 이론에 집중해서 작품의 의미를 평가하거나 남성 지식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입각해 작가의 가치관을 추론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작품의 실제 주인공인 여성 지식인의 각성이나 변화가 가진 의미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는 40년대 전후 파시즘(전쟁)과 해방이라는 혼란 가운데 긍정적인 인간상을 모색하고 있다. 작가 김남천은 “남쪽 북쪽이 갈리고 정당이 45개나 생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떠들어 대고,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뒤숭숭”하다고 이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여! 어디로 가려는가? 청년의 불타는 정열과 냉철한 진리를 안고 그대들은 어디로 향하려는가?”⁴⁾ 묻는다. 문제는 작가가 1945년

2) 김외근, 「새나라 건설을 위한 노력과 좌절-김남천의 <1945년 8.15>」, 『한국현대소설탐구』, 역락, 2002; 김한식, 「김남천 장편소설 <1945년 8.15>연구」, 『현대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7 등

3) 김동석, 「김남천의 <1945년 8.15>연구」,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손미란,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사랑의 수족관〉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4, 2009; 서영인, 「김남천의 해방기 문학해석을 위한 시론-〈1945년 8.15〉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4, 2006 등.

4) 김남천, 「작가의 말」, 『1945년 8.15』, 8쪽.

8.15를 혼란의 시대인 동시에 젊음의 시대라고 언명하는 지점에 있다. 1940년대 초 상황에서 나름대로 긍정성을 확보했던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불타는 정열과 냉철한 진리를 안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해방기에 그들은 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가. 40년대 초 김광호와 이경희의 지식과 교양은 왜 40년대 후반 김지원, 박문경의 지식 교양과 다르며, 타락한 것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여주인공의 교양과 실천이 가진 의미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어, 박문경과 이경희의 입장에서 세대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연애와 실천이 가진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경희가 대변하는 아버지 계승의 세계, 박문경이 대변하는 아버지 단절의 세계를 문경과 무경 남매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이경희가 비판하는 남편 김광호의 의식, 박문경이 숭배하는 애인 김지원의 의식이 어떠한 저변에서 출발하는가를 기술자/주의자의 이중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일제 말과 해방 상황에서 지식인 여성의 교양이 가진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이다.

2. 해방기의 표정-‘아버지’에 대한 계승과 결별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의 주인공은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교양인이다. 두 소설은 친일 군수재벌의 딸 이경희와 해외 독립운동가의 딸 박문경이 일제 말과 해방 직후 상황에서 누구와 어떠한 연애를 하는가와 함께 당대를 위한 최선의 실천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여성 교양인의 연애와 공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두 텍스트의 서사적 틀은 유사하다. 두 텍스트에서 교양인 여성의 연애 대상은 토목기사, 의학사 등 기술전문가 남성이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기술(토목기술 및 의술) 전문가를 연애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들에 대해 일정하게 비판 혹은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두 텍스트 내 연애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먼저 <사랑의 수족관>에서 주인공들의 연애는 이경희가 상속재산 100만 원을 탁아소 사업에 투자해 파시즘적 시대 상황 속 김광호의 허무주의를 치유한다는 환상을 품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녀는 친일 군수재벌 아버지의 세계를 소극적 인도주의라는 명목 하에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허무주의에 빠진 지식인 남성을 계몽한다. 즉 경희에게 연애란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거부보다는 동시대 남성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계몽이라는 성격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1945년 8.15>에서 경희는 별다른 갈등 없이 아버지 이신국의 자본과 아메리카 옹호론에 안주해 있다.

반면 <1945년 8.15>에서 주인공 박문경의 연애는 그녀가 애인 김지원의 세계관(계급이론)을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좌익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세계(임정 민족주의)와 단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설은 문경을 둘러싼 세 남성의 이야기로 집약되며, 20여년 전 집을 떠나 해외 독립운동에 매진한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아버지 박일산의 (여전히 소문으로만 떠도는) 귀국, 징집을 걱정하던 남동생 무경의 극우화된 조직열, 의대생으로서 징집 반대 격문을 뿌리고 정치범으로 해방을 맞은 애인 김지원의 좌익 운동 헌신이 그려진다. 문경의 삶을 둘러싼 세 남성의 이야기는 혈연(민족)의 우익 논리를 배척하고 동지애(계급)에 기반 한 좌익 논리로 나아가는 여성 성장 소설의 구조를 이룬다.⁵⁾

문경의 성장은 그녀가 거리곳곳에서 목격하는 해방기의 변화와 연결된다. 먼저 해방 소식을 듣고 상경하는 길에 발견하는 것은 칼을 찬 일본인 순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전재민을 짓밟는 굴욕적 풍경이다. 식민지와 다름없는 광경에서 그녀는 “민족해방의 사자후!”는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 한다. 더구나 여름 벌레 발가벗다시피 하고 늘어선 전재민의 모습은

5) 우리나라 여성 성장 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흔히 지적되는 특징인데, 이는 남성 성장 소설과 달리 긍정적인 자질로 이해된다. 여성은 타자로서 자리매김되기에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2003 참고.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용하고 살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 문제를 환기한다. 이는 정치적 해방이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해방이 되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가져온다. 그러나 문경은 경희에게서 동생이 팔에 완장을 차고 교통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며 정치범이 석방됐다는 소식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방된 거리의 격변을 차츰 목격하게 된다.

행렬의 선두가 차츰 그들의 앞으로 가까이 온다. 비를 피하였던 군중이 우르르 보도로 나선다.

“무슨 단체냐?”

“어느 당의 행렬이야?”

저저끔 수군거리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다. …(중략)…

자동차 위에서 만세를 부른다. 행렬이 마주 받는다. 마침 양쪽 빌딩 꼭대기에서 빠라가 쏟아져 내려온다. 눈보라처럼 별떼처럼 설레이면서 빠라가, 빠라가 쏟아져 내려온다.(157~158)

새로운 시대는 소문과 강령의 축제, 혼란이 극대화한 장면으로 드러난다. 모두가 무언가를 외치며 무언가에 동조해 과업을 하거나 거리 행진을 하거나 빠라를 뿌린다.⁶⁾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내라고 시위를 벌이고 학생들은 일본 군인을 공격해 총검을 빼앗고 거리를 장악한다. 친일파들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운동가들은 이름을 정치적으로 알려느라고 바쁘고, 행랑어멈 순이 어머니 같은 사람조차 남편 찾아내라고 구역소와 정회, 부청에 가서 시위를 하느라 바쁘다.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공공의 장에서 마음껏 외치는 시기, 모두가 정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시기로 해방기는 그려진다. 문경 역시 지원, 정현 등과 함께 9월의 공산당 선언 거리집회를 목격하고 그에 휩쓸려 함께 만세를 부름으

6) 천정환은 해방기의 거리를 축제의 시공간으로 명명하며 음식, 소문 등의 관점에서 거리 정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2009.

로써 거리 정치에 참여한다. 다양한 욕망을 가진 군중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마음껏 외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한편 거리 정치는 무수히 많은 강령, 요구, 정당, 빠라, 격문을 보여준다. 이는 일견 “저 빠라나 격문이 모두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일본 경찰이 잡아 가둘 때엔 한 장도 보기 힘들던 격문이 마음대로 박아 돌린다는 통에 저토록 무질서하게 홍수처럼 쏟아져나온 게 아닐 것이냐.”(57)라는 비판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말의 홍수 가운데 독립운동가이며 임정 요인인 아버지의 귀국 소문이 들려온다. 아버지의 귀국은 계속해서 소문으로만 남는다. 문경의 아버지는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직도’ 귀국하지 않는다. 허황하고 과장된 말의 잔치 속에서 문경과 무경은 각자 상상 속 아버지의 정치적 지향성으로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들의 갈등은 해방 조국을 둘러싸고 진정한 해방이 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지연된 아버지의 자리에서 무엇이 올바른 아버지인가, 무엇이 올바른 해방인가를 둘러싼 대결과 갈등을 내포하는 45년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

“누나, 인민공화국 대신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은 뜻밖의 물음이었다.

“무어 알구나 촘추슈. 오래잖아 아버지가 돌아오실 텐데 누난 무슨 망령이 나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구 이 모양이슈. 아버지가 오시면 칭찬허겠수.”(163)

해외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둔 남매의 갈등은 누가 아버지의 업을 잇는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국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아들은 대신명부에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민공화국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삶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업, 이름을 높이는 데 바쳐진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행위 준거가 된다. 반면 딸에게 있어 아버지는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기는 하되 절대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행위 정당성을 애인의 명령에서

찾기 때문이다. 문경은 입장을 잇는다는 대한 공화당의 간부 최진성에 대한 개인적 반감과 함께 연인 지원과 동생 무경의 사상적 대립, 아버지 박일산의 사상적 위치 사이에서 갈등한다.

“난 아버지가 소속해 계시는 임시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생겨난 인민공화국과 그것을 만든 공산당은 반대요,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국내세력을 또한 지지합니다. 삼단논법에 의해서 논리상으로도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반동이라면 아버지도 반동이라는 말입니다.” …(중략)…

“네 삼단논법은 이론적 계기가 전연 없다. 네 논리학이 이루어진 대전제가 이론적이지 아니요, 비논리적이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옳다, …(중략)… 그것만으론 조선민족이 산다던가 죽는가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구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된 일이나. 그리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모든 애정과 존경을 기우려서 정성껏 노력하고 성심껏 전력하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아버지께서도 옳다고 생각하시도록 나는 애써야 할 줄 안다.”(253~254)

문경과 무경은 아버지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 옳은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상을 아버지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를 놓고 대립한다. 무경이 아버지라는 혈통적 사실로부터 그를 따르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짓 삼단논법을 제출하는 데 반해 문경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은 절대적인 문제에 해답을 찾고 아버지가 그 해답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 아버지니까 무조건 옳다는 무경의 논리는 부정확한 권위의 모델을 추종하는 행동이기에 논리와 무관하다. 반면 문경 역시 비논리적인데, 과연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산주의만인가라는 부분, 하나의 답변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이 문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문경은 지원이 지지하는 인민공화국의 강령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버지나 자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나 인민공화국이나 임시정부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을 구하는 길이 조선 삼천만 민족을 구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다.”(255)고 문경은 주장한다. 그는 인민공화국이 왜 임시정부에 반대하는가를 묻지 않으며 공화국이 조선의 문제 해결에 절대적인 답변이라고만 주장한다. 왜 조선 민중 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조선공산당, 인민공화국은 임시정부에 반대하는가. 왜 임시정부에 찬성하면서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와 같은 고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경의 아버지 계승이 임정 계승의 기치를 건 ‘정당’(대한공화당)에의 투신이 된다면 문경의 아버지 계승은 ‘혁명’의 계승으로 이야기된다. 문경은 “아버지는 혁명잡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꼭 믿고 싶습니다.”라며 “아버지의 생각이 꼭 공산당과 같으신지 그건 저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286)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아버지의 애국심을 믿으며 그 애국심의 기반에서 아버지가 대한공화당이 아니라 공산당과 인민공화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문경은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한지 친일과 편에 들 수 없으며, “가장 조선을 사랑한 애국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세요.”(289)라고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문경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계승이라는 문제를 벗어난다. 그에게는 더 이상 계승할 아버지가 없다. 그에게 아버지는 자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고 수행할, 시효가 지난 낡은 가치, ‘늙은 영웅’이 되어 있을 뿐이다.

3. 전문기술자 남성의 변모와 연애의 의미

<사랑의 수족관>이 형상화하는 40년대 초반이 일본 제국주의 과시즘에 반하는 어떤 사상도, 주의도 허용되지 않는 전체성의 시대라면 <1945

년 8.15>가 형상화하는 40년대 후반은 “어떤 통신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사된 정치단체가 마흔 셋이 된다고”(69) 할 만큼 수많은 강령과 입장, 수많은 주장과 요구가 분출되는 사상적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해방기 거리를 채운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출하며 수많은 도덕과 강령을 내세운다. 40년대 초 경직된 전체주의 상황과 달리 해방기는 입장과 주장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전제로 소통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40년대 초가 절대적인 거대 권력이 제국주의, 파시즘의 담론으로 내선일체, 일시동인, 황국신민의 서와 같은 강령을 강요하고 신사참배, 창씨개명, 공출, 강제 징집을 행사한 시대이기에 계몽적 이성과 보편적 진리에 입각한 지식인의 저항이 유효한 시대라고 한다면,⁷⁾ 40년대 후반 해방기의 지식은 어떤 절대성이나 보편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1945년 8.15>에서 김남천은 다양성보다 어떤 절대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많은 강령과 주위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차이들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를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절대적 정당성을 인민 공화국에서 찾아가는 젊은이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인 <사랑의 수족관>과 후편인 <1945년 8.15>에서 일제 말과 해방기의 긍정성을 대변하는 지식인 김광호와 김지원은 이런 점에서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서 전문 이상의 교양을 가진 여주인공의 연애대상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은 각각 제국 대학 토목과와 의학부를 졸업한 고급 기술 인력이다. 토목과 의료 기술전문가로서 그들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나의 장구한 시일 동안의 생활비와 학비가 같은 조선 사람의 고혈로써 이루어졌다는”(120) 지원의 비판처럼 지식인의 책무를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은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인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대해 일정한 부채의식을 느끼며 일제 말과 해방

7) 사르트르는 지식인의 성격과 역할로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지배 계급의 허위를 폭로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를 들고 있다. 사르트르, 박정태 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학사, 2007 참고.

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기술자란 근대 이후 고등공업학교나 대학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며 전문지식기술 담당자로서 특권적 위치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면에서 윤리를 요구받는다.⁸⁾ 식민지 사회에서 전문기술자는 기술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이수자로서 특권적 교양 계급이 된다. 그들의 지식은 다른 조선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최고 학문의 영광’이기에 그들에게는 지식인의 책무, 민족에 대한 의무와 계급에 대한 반성이 촉구된다. 그런데 <사랑의 수족관>에서 그리는 것처럼 40년대 초 전체주의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 기술의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시대상황과 무관하게 일정한 균형감과 윤리성을 확보한다. 파시즘의 광기와 계급-민족의 운명이라는 과제 앞에서 다소간 판단을 유예하고, 전문기술 영역에 기댄 그들은 기술 밖의 모든 현실에 허무를 느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자선사업이나 그런것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형에게서 바든 유산가치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경희씨가 생각하는것처럼 악질의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나는 첫째 직업엔 충실할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에 대한 무슨 까닭인지모르나 그러케 기쁜 회일 품어본적이 었는 것 가타요.⁹⁾

<사랑의 수족관>에서 “기술에서 일탄 눈을 사회로 방향을 돌리면 나는 일종의 폐시미즘에 사로잡힙니다.”라는 광호의 고백은 파시즘적 시대 상황에서 권력 비판의 의무를 몰각하고 기술의 세계에 몰입한 지식인의 내면을 집약해 보인다. 광호는 경희에게 자신의 허무적 태도가 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광호의 형 광준은 식민지 시대 좌익 운동

8) 물리학, 수학적 방법의 발전에 의해 경험에 의지한 전통적인 직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요구되어 국가에 의한 기술자 육성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도제 제도에서 자라는 갑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기술직공이 아니고, 수학 과학이 뒷받침하는 전문 직업인이었다. 그들의 충성 대상은 국가였다. 札野順 편저, 김영종 역, 『기술자 윤리』, 한국학술정보, 2007, 43~44쪽.

9)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한국장편소설대계』 1, 태학사, 1987, 94쪽.

에 투신한 주의자였으나 지식인의 책무와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광호는 형의 사상에 방관적 동조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식인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한정한다. 즉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침략과 파괴 같은 행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 비판하지 않는다. 문제는 40년대 초의 상황이란 권력이 절대적인 힘으로 일상을 지배하며 다른 전망이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 절대적 부정성의 시대 현실에서 그는 지식인으로서 지배 계급의 허위를 폭로하고 기존 이념을 거부하는 사명을 환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계 건축회사에 소속되어 만주개발에 동참하는 광호의 '기술자'로서의 일상과 과학 중립의 직업의식이란 '지식인'의 요구와 필요성을 망각한 것이기에 허무주의로 평가될 수 있다.¹⁰⁾ 경희는 광호의 직업윤리 이면에 존재하는 허무주의를 간파하며 그를 탁아소 사업에 끌어들이므로써 그에게 소극적이거나 지식인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의료) 기술자로서 광호와 지원은 해방 전 그들이 몸담고 있던 과학 기술의 세계로부터 해방 이후 멀어진다. 광호는 토목기사직을 떠나 장인 이신국의 대흥기업 이사 겸 우익 대한공화당 대리인이 되어 있고 지원은 대학병원 의사 직위를 떠나 좌익 노동운동가로 전신한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광호가 대척하는 존재는 지식인 광준이 아니라 속물적 브로커 송현도이다. 때문에 그는 기술자의 교양과 직업윤리만으로도 긍정성을 내포할 수 있었다. 반면 <1945년 8.15>에서 그와 대척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자 지원이다.¹¹⁾ 지식인-주의자와 대립하고 있기에 기술 전문가의 성실성은 우유부단한 양심, 회의분자의 자기기만이라는 문제를 낳게

10) 허병식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김광호의 직분 윤리란 결국 파시즘적 시대상에 함몰된 결과 교양의 종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교양이 주체 형성의 과정으로서 핵심에서 벗어나 파시즘적 시대 상황과 동화 논리에 함몰됨으로써 좌절되고 직분의 윤리를 받아들여 파시즘으로 달려가는 청년 주인공들의 서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허병식, '직분의 윤리와 교양의 종결', 『현대소설연구』 32, 2006.

11) 연작소설 후편에서 광호와 경희가 보이는 변화는 긍정/부정으로 평가하기보다 그들의 위치/배치에 입각한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서영인, 앞의 글 참고

된다. 친일자본가 이신국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위 광호의 양심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기만적 도피술로 악용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장인의 배금주의에 찬동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장인의 재력이 허락하는 자본주의적 안락함에 젖어 남성 가부장의 사고와 행동을 나타낸다. 주의자의 아우, 친일 군수재벌의 사위라는 모순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토목기사”(187)라는 잃어버린 위치를 그리워한다. 장인의 사위로서 거짓 민족주의의 감투를 쓰거나 형의 동생으로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현실과 무관한 기술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재에 있어 그는 “내 형의 아우이기보다 내 장인의 사위이기 쉬운 존재”, 방적공장에서 “중역의 밥을 얻어먹은” 그렇기에 파업 직공들의 요구를 듣고 절충하는 직무를 맡은 인간이다. 굶지도 않지만 호사도 않는 전문기술자의 감각으로 ‘정치’가 아니라 ‘일상’을 살고자 하는 그가 결혼과 함께 해방기의 정치에 끌려들어가며 불행해지는 셈이다. 토목기사라는 일상적(다원적) 자리에서 그가 해방기의 거리 정치에 뛰어 든다면 그의 행동이나 주장은 기술 전문가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치 자본가의 자리에 있기에 그의 주장과 실천은 괴리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그는 아내의 정치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이며 양심적인 척 행동하는 기만적 부르주아인 동시에 우익 정당의 얼굴 마담 노릇을 하는 분열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이 김광호란 자가 교양 있고 노자관계에 대해서도 생판 몰상식한 것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 짓는 데 일종의 지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업원 대표와 상대해서 문제를 놓고 서로 따지면, 이 자가 대부분 이해하는 듯 또 승인할 듯 그런 일종의 동정적이지요, 나쁘게 말하면 기만적인 수단을 쓰는 모양이나(269)

광호는 양심적이지만(지식인) 소극적이다(기술자). 그는 교양과 노자관계의 상식에 입각해 파업 타결 협상에 임하지만 아무런 결정권도 갖지

못하기에 그가 가진 교양과 상식이란 오히려 비양심적인 것, 즉 “일종의 기만적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는 전문기술자이기에 교양과 상식을 갖지만 신념과 실천을 갖추지 못하기에 그 교양 때문에 오히려 반 지식인으로 낙인찍힌다. 토목 기술이라는 전문 지식은 해방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하는 환상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술자의 교양이 지식인의 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은가? 리오타르는 19세기 이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근대의 거대담론이 요구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를 갖는 반지식인(기술관료)들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편적 이성의 거대담론이란 전문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압적인 성격을 갖기에 이성의 다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작은 이야기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런 견해에 따르면 정당만 45개에 이르는 해방기의 급격한 혼란상,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시대 상황에서 오로지 노동자 계급 위주, 인민공화국에 입각한 새나라 만들기만을 고수하는 김지원과 최문경의 관점이야말로 억압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파시즘적 시대 상황에서 토목기사로서 직업적 성실성에 안주하는 광호와 달리 지원은 강제 징병에 반대하는 격문을 살포한 죄로 수감된 ‘양심적 지식인’이다. 문경은 그의 행동이 “뻔뻔하고 체면 없고 철딱서니 없는 도도한 탁류 위에 뿌려진 한 장의 항의문”이며 “이 땅에 아직도 청년이 살아 있다는 작은 하나의 신호등”이었다고 평가한다. 지원은 “경성대학 의학부를 그해 구월에 마쳤으니 학도지원병 제도의 문제는 말하자면 그의 일신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학도 공동의 문제”라고 칭하며 용감히 나섰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기술자보다 주의자로서 해방기를 맞이한다. 장사우, 최학진 두 선배와 함께 보낸 구치감 생활은 “그에게 가장 감명 깊은 공동생활이었고 지원의 사상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결정적인 미를 가지는 생활”로 그는 이를 통해 절대성

12)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편역, 『지식인의 종언』, 문예출판사, 1993 참고.

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주의자로 탄생한다. 지원은 의사 일을 계속하겠는지 다른 일을 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벌어진 사태로 보아 한 사람의 의학박사의 탄생보다 나는 다른 일꾼이 요망되고 있다고 생각”(138)한다며 조직 사업에 투신할 뜻을 밝힌다. 해방 전 그가 뿌린 격문은 지식인 교양(시대 청년의 공통적 양심)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인 반면 해방이후 그의 활동은 기술을 버리는 동시에 어떤 절대성의 영역이 과도해지며 자폐증에 빠진 채 현실을 상실함으로써 지식 교양을 버리는 과정이 된다. 그는 작은 이야기, 자신의 기술에 입각한 주의나 강령 대신 절대성의 영역에서 양심을 고착하고 환상적인 도취에 빠져든다. 자신의 전문 기술이 수많은 조선 민중의 고향 위에서 구축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기술을 통해 해방된 조국의 발전에 헌신하는 대신 기술을 버리고 조직 활동에 투신함으로써 어떤 환각적 절대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의자로서 그는 기술자의 이야기와 강령을 벗어나 자기 가족, 연인, 지식, 교양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새로운 교양과 신념을 구축하려 한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에서 애인으로 인정했던 문경의 존재조차 부정한다. 해방기의 지식인으로서 그는 연애에 있어 ‘기술자의 애인(연애감정)’이 아니라 ‘주의자의 동지(신념과 실천)’되기를 문경에게 요구한다. 주의자로서 그는 현실성을 갖지 못한 근거 없는 낙관성을 보여준다. 소작인들이 자기 집을 습격해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에도 지원은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삼십팔도 이북은 차츰 잘 되어 가겠지요.”(130)라고 낙관한다. 주의자로서의 전신을 위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소시민 근성, 기술자의 교양을 반성한다. 그에게 교양이란 취미나 양심만이 아니고 지식과 무관한 의연함/신념으로 대체된다. 그렇기에 토목기사 김광호의 교양(양심)은 기만적 술책으로, 선반공 오성주의 교양(신념)은 실천과 결부된 현명함으로 제시된다. “동양제강 영등포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십년 동안의 경력을 가졌다는 오성주”는 지원에게 의사로서의 양심과 주의자로서의 활동 사이에서 고민하고 반성하게 한다. 지원은 오성주의 어린아이의 병을 진찰하고 우울을 느끼는데 이는 의사이면서 생명에 대한 방관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

는 것이다.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르면 아이의 병을 돌봐야 하지만 조직 활동에서 기술자의 양심에 집착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기에 그는 의술의 한계를 느끼는 자신을 반성한다. “뺨속에까지 젖어 있는 교양과 취미와 습속과 습관을 기울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것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을 가리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표현한 것이리라.”(298) 의료기술자로서 인간의 생명과 의술을 고민하는 지식 교양을 소시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지원의 눈에 궁극적인 교양이란 모든 사적인 감정, 열정, 애욕을 넘어서 신념에 투신하는 혁명가의 공적 사명감과 의연함이 된다.

인격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그런 말로써 표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판별력에 의해서 훈련을 치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압력 같은 것이 모르는 새에 지원에게까지 영향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성주의 타고난 성미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후천적인 곳에도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의 공연한 지식벽일는지.(319~320)

황성묵, 오성주 등은 학식에 의한 교양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통한 교양을 보여준다. 그들은 김광호나 이경희, 김지원과 박문경의 소극적인 양심이나 세련된 취미 등을 지칭하는 교양이 아니라 활동과 조직행위에서 오는 신념과 의지에 입각한 교양을 보여주며 주의자(노동자)의 교양을 지식인적 교양과 차별화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관찰인가, 기술지식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현실 주의자(노동자)의 교양을 모방할 수 있는가, 모방해야 하는가에 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문경이 발견하는 노동자란 지원의 환상과 달리 저속하고 무지하며 초라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발견되는 까닭이다.

첫째로 그들의 취미가 저속하고 야단스러운 데는 실망하였다. …(중략)…

끝으로 더 딱한 것은 그들은 직공이나 노동자나 하는 명칭으로 자기네들이 불리어질 때 확실히 그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노동자계급이 위대하다고 떠드는 것은 박문경이 따위요, 노동자 자신들은 그런 명예롭지 못한 명칭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뻔하다.(330)

문경은 노동자와 조직운동가에 대한 지원의 환상을 전유하기에 그 속에서 발견된 노동자와 실제 노동자 사이에 괴리를 느낀다. 실제 노동자는 부박하고 저속한 취미에 야단스럽거나 비위생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인 여성에 대해 경이원지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각성을 담은 뉴스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지식인은 노동계급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은 노동운동에 뛰어들 지식인 지원이 그려내는 환상 속에서 구축된 것이기에 현실에 부딪힐 때 절망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문경은 지원의 환상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소시민근성을 탓한다.

레지 드브레는 자유로운 정신으로 권력을 비판한 최초의 지식인과 달리 최후의 지식인은 집단 자폐증, 현실감 상실, 도덕적 자기도취, 만성적 비전 부족, 임기응변의 한계에 빠져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¹³⁾ 이런 견해에 입각해 볼 때 40년대 초의 광호가 비전 상실의 문제를 나타낸다면 40년대 후반의 지원은 현실감 상실과 집단 자폐증의 문제를 보여주며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자로서 광호는 40년대 초의 현실 앞에서 판단중지의 허무를 보여준다. 그의 태도는 현실 타개의 근원적 방침을 요구하면서도 그 실천에는 무관심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반면 지원은 주의자로서 40년대 후반 현실 앞에서 환상을 꾸며낸다. 그는 끝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지식인적 교양이 아니라 주의자적 교양을 발견하려 한다. 그렇다면 이들 기술자, 주의자와

13) 레지 드브레, 강주현 역, 『지식인의 종말』, 예문, 2001 참고.

연애(결혼)하는 여성 교양인의 성격은 그 가운데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4. 여성 교양인의 운명-비판하는 여성의 타락과 실천하는 여성의 맹목성

<사랑의 수족관>은 기술자 김광호가 지식 교양인 이경희의 “최소한의 선”에 공감하며 경희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과 함께 애정 결합이 완료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때 경희의 교양은 군수 재벌 아버지의 딸이라는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속물성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행동으로 광호의 허무주의를 치유하는 연애와 취미, 자아의 각성과 반성을 내포한다. 경희의 교양은 취미의 영역에서 움직이며 소박한 선이라도 하는 편이 낫다는 신념으로 파시즘적 시대 상황에서 일정한 보편성과 절대성을 갖는 실천이 된다. 소설에서 연애와 자선 사업은 필연적 관련을 갖는데, 이는 경희가 광호에 대해 갖는 매력이 자선 사업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 허무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경희의 자선사업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기만족에 불과하다고 광호가 비판하면, 경희는 광호에게 “저의 생각이 일종의 센치멘타리즘에 불과하다면, 김선생의 생각은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고”¹⁴⁾ 비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신념이나 태도를 문제 삼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연애를 수행한다. 즉 그들의 연애는 서로에 대한 호감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대해 엄정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945년 8.15>에서도 경희와 광호는 여전히 서로에 대해 비판적이다. 경희가 광호의 허무주의와 비효율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광호는 경희의 인도주의가 발현되는 배경으로 존재하는 친일 군수재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의 연애는 고등 교육에 입각한 지식 교양의 대립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4)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66쪽.

경희의 교양은 40년대 초 소극적인 정치성의 주장, 자본가의 ‘자선’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현실성을 묻지 않은 채 실천만을 중시하는 점에서 그는 친일재벌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의 신념은 취미와 구분되지 않는다.¹⁵⁾ 신념 상실의 시대에 행동으로서 신념을 대체하려 했던 교양인 경희는 <1945년 8.15>에 이르러 일견 자본주의 가부장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자본가의 우인’으로서 아메리카에 대한 신뢰를 신념화해 가는 경희에게 있어 비판 대상은 자신의 정치열을 가로막는 남편 광호가 된다.

이경희가 맨 먼저 꿈꾸었던 것은 여성운동이었으나 그런 것에 발 벗고 나서는 데 대해선 남편 광호가 절대 반대하였다. 참정권이니 여자끼리만 정당을 꾸미느니 하는 건 물론이요, 일체의 운동 제일선에 경희 자신이 나서는 것은 이유 없이 한사코 반대였다.(167~168)

이신국 씨의 딸이요, 이신국 씨 사위의 아내인 이경희 씨는 일체 여성운동이나 정치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 건국에 기여하는 길이요. 또 지금 그런 의미에선 이신국, 이경철, 김광호보다 감금당하여 있다는 당신 이경희씨가 건국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185)

친일자본가 아버지 때문에 15일 이후 막연히 찾아왔던 공포가 사라지면서 경희는 해방 정국에서 어떤 운동을 피하려는 열망을 갖는다. 이는 해방이 분출시킨 다양한 사업열, 정치열의 하나로서, 식민지 시대 그녀의 사업열이 미온적인 탁아소 사업으로 나타났다면 해방이 불러들인 사업열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같은 적극적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신념은 가부장제에 귀속한 지식인 여성으로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

15) 손미란은 이경희의 자선사업이 처음부터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이경희, 김광호를 긍정적인 인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한다(손미란, 앞의 글). 그러나 본고에서는 <1945년 8.15>의 경희를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저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물로 볼 수 있는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는 작은 이야기(주의)의 가치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못한다. 이는 남편 광호가 경희의 위치를 가부장제에 억압된 타자로서의 여성(주부)이 아니라 친일 군수재벌 아버지의 딸이라고 규정하는 까닭이다. 광호는 개별적인 다양성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성을 표출하는 경희의 행동을 오로지 아버지가 친일 군수재벌이라는 사실을 들어 억압한다. 다양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는 경희의 정치성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무기력을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돌리는 것이다.

해방기의 모든 사업을 친일-반일의 절대성으로 환원하는 광호의 시각에 대해 경희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편의 무기력을 비판한다.

반대면 반대로 어찌서 용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의 취미나 기호인 것처럼 비판만 늘어놓고, 그 비판 끝에 하나로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 없다. 그것을 가리켜 지식인의 고고한 비판의식이라 일컫는 것인가.(192)

광호는 경희에게 기술자의 진실함이나 소박한 휴머니즘에 대한 동의를 보여주는 대신 자폐증에 빠진 채 상대의 흠집만을 찾아내는 ‘지식인의 고고한 비판의식’을 보일 뿐이다. “견식이 투철하고 예리”하며 인격이 고결해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폄하와 자조의식 속에서 극도의 비굴과 노열한 생활의식”을 노출하는 남편의 상반성이 경희에게는 무지조한 것,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 아닌 행동과 적극성 없는 실천 그리고는 피곤과 신경질과 독설이 남”아 있을 뿐인 광호의 행동이란 타협하는 현재의 삶과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다시 비웃고 조소하”는 뒤엉킨 심리의 결과이다. 경희는 “정치란 그다지 예리한 비판이나 신경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모르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뒤덮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쭉시고 뚫고 정신없이 매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192)

다양한 정당이 난립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인쇄물이 쏟아지며 모두가

정치열을 앓는 시대 상황 속 교양과 이지를 가진 중년부인 경희의 현실과 친일 자본가의 딸이라는 남편의 호명이 부딪치는 자리에서 그녀의 공적 사업열은 격정의 형태로 왜곡되며 무경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신념도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남편과 달리 신념에 차서 학도대 활동을 해나가는 무경에게 경희는 매력을 느낀다. 무경의 공적 사업열이 학도대의 해체와 함께 좌절된 순간 그들은 신념의 좌절로부터 불륜을 저지른다. 사업열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지 못했을 때 그녀는 결국 애욕으로밖에 그 열정을 표출하지 못한다. 만약 그녀가 남편 광호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운동이나 다른 형태의 빈민 운동에 나섰다면 그녀의 열정은 결코 교양이나 이지, 도덕과 어긋난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희의 윤리적 타락은 가부장제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광호에 대한 비판이며, 여성 참정권의 요구라는 (개별)정치적 신념을 사적 욕망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기력하면서도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한 반감과 탈선의 욕망은 가출과 이혼의 욕망으로 이어진다. 공적 열정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희의 공적 열정은 사적 욕망으로 전이한다. 그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뛰어드는 대신 미군 장교들과 댄스를 즐기고 그들의 지프에 올라 드라이브에 나섬으로써 사적 밀담의 세계에 파고든다. 서술자는 경희의 행위를 타락한 것으로, 해방기 상황에서 모든 다양성의 요구를 타락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여성 지식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평가가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경희가 자본주의-아메리카에 투항하는 한편 남편 광호의 소극성에 비판적이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는 그의 교양이 서구 자본주의 문화에 기원을 둔 영어, 영화, 사교적 예의와 댄스 등의 취미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세련된 양장 차림으로 자선 사업의 교양을 이야기하듯 취미, 교양, 패션의 층위에서 움직이기에 그에게 미군 지프를 타는 행위는 타락이 아닌 반항의 정치성으로 의미매김된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버지 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영어 회

화와 댄스 등의 교양을 실험하는, 세련된 취미와 패션을 향유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취미에 입각한 반항이란 점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 남편의 가부장제를 오히려 위협한다.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지식인 여성 경희의 타락이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정치성이 발현되는 지점이라고 해석될 여지를 갖는 것이다.

친일 자본가의 딸 경희의 교양이 남편에 대한 비판 의식의 왜곡과 함께 사적 욕망에 투신하는 타락으로 형상화된다면, 독립운동가의 딸 문경의 교양은 아버지에 대한 단절과 함께 애인에 대한 공적 헌신으로 몰개성화한다. 군수산업 대흥 콘체른에 근무하며 이신국, 김광호, 이경철 등에 호의를 품었던 문경은 해방과 함께 지원의 영향을 받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다. 이는 “이 길을 통하여서만 지원에 대한 그의 사모하는 마음은 옳고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른다. 문경에게는 새 나라 건설과 지원과의 연애 결합이 동일한 것으로 진행된다. 문경은 “신념! 신념에 사는 사람. 사욕 사심을 떠나 이 길로 나가는 것만이 조선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 길을 위하여 적은 도움이라도 되어서라고 모든 사사로운 일을 물리치고 신념 가운데서 사는 사람.”(236)이라고 찬탄하며 애인 지원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신념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주의자로 전신한다. “처음 만나는 지도자-그것이 8월 15일 전부터 사모하고 경앙하던 김지원 씨인 것,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 생각해보면 하나의 커다란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고 문경은 생각해 본다.”(239) 애인에게 느끼는 사랑을 지도자에 대한 경모로 대체하며 그녀는 애인의 제자이기를 자처한다. 동등한 애인관계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제관계로 변화하며 그녀의 의지나 주체적 사고가 자리할 여지는 사라지고 만다.

문경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대신 지원의 지시, 명령을 기다린다. “지시만 내린다면 그것이 지원의 명령이라면 문경은 그것에 쫓아 물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자신이 서 있다고 때때로는 생각하여 본다.”(144) 연애에 있어 누구보다 순정적이라 하더라도 애인의 신념을 따르지 못하

고 지령을 받지 못하는 순간 연애의 탈락자가 되어 버린다. 연애 조건의 각성과 함께 그는 자신의 공적 사업이 여성 운동이 아니라 노조 사업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그는 지원에게 “부녀동맹이나 모폴 같은 데보다도 직접 노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게 주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277)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경희와 달리 여성운동이나 모폴처럼 해외 독립 운동가의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된 작은 이야기, 부문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경희의 정치성이 여성 참정권의 요구로 나타난다면 문경의 사회참여는 일부러 운동에서 여성성을 배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희의 사회참여가 가부장제에 대한 배반과 결부된 반면 문경의 사회참여는 가부장제의 계승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결국 경희의 공적 열정이 사적 행동(사교)으로 나타나고 문경의 사적 욕망이 공적 행동(노동운동)으로 나타날 때, 경희의 비판적 교양은 타락한 것으로 발견되고 문경의 사적 욕망은 거세되며 그의 교양은 맹목적, 순응적인 것이 되고 만다. 공적 열정(사명)과 사적 욕망(연애)은 해방기 두 여성 교양인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경희는 광호에 대한 연애와 탁아소 사업의 열정을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형태로 꿈꾸며 조화를 모색하지만 <1945년 8.15>에 이르러 이는 지식인 광호의 억압적 가부장제 환원과 함께 깨뜨려지고 만다. 공적 열정을 내세우는 여성은 가부장제의 논리 속에서 억압되고 타락하며 사적 욕망을 품은 여성은 억지로 공적 세계에 뛰어들며 끝없는 반성 일기를 쓰고 고민한다. 그 가운데 욕망을 품은 교양인 여성은 해체되고 여성 지식인은 타락하거나 무성화된 존재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김남천의 연작 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를 해방 전후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성 교양인의 성격, 운

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두 소설은 각각 친일 군수재벌의 딸 이경희와 해외 독립운동가의 딸 박문경이 일제 말기와 해방 직후 상황에서 누구와 어떠한 연애를 하는가와 함께 당대를 위한 최선의 실천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주된 서사로 제시하고 있다. 교양인 여성의 연애 대상은 토목기사, 의학사 등 기술전문가 남성으로, 해방 전후 시대 상황에서 기술자 혹은 주의자로서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 일정하게 비판 혹은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두 소설 내 연애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사랑의 수족관>의 주인공 경희가 허무주의자 애인 광호를 계몽하면서 친일 자본가 아버지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계승한다면, 임정 주요요인 아버지를 둔 <1945년 8.15>의 주인공 문경은 애인 지원의 사상적 영향 하에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단절해 간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연애는 센티멘털리즘과 허무주의가 대립을 벌이는 것처럼 진행되며 광호와 경희의 결합은 허무주의가 센티멘털리즘에 의해 극복되는 것, 즉 소박한 휴머니즘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그러나 <1945년 8.15>에서 해방기의 사업열을 앓는 경희에게 회의주의자 광호에게 느꼈던 매력은 무조건적인 열정과 의지로 현실에 육박하는 실천가에 대한 매혹으로 교체된다. 문경에 대한 경희의 열정은 가부장제에 억압된 여성으로서 공적 사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희가 공적 열정의 가부장적 억압에 대해 사적 반항을 피함으로써 저항하는 행동을 나타낸다면, 문경은 가부장-애인의 명령에 순응할 뿐 사적 욕망에서 비롯된 공적 열정의 책무로 기계적인 활동을 반복할 따름이다. 이처럼 남성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여성의 운명을 돌아볼 때, 경희와 문경의 가치는 역전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천, 『1945년 8.15』, 도서출판 작가들, 200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한국장편소설대계』 1, 태학사, 1987.

2. 단행본

- 札野 順 편저, 김영중 역, 『기술자 윤리』, 한국학술정보, 2007.
 레지 드브레, 강주현 역, 『지식인의 종말』, 예문, 2001.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편역, 『지식인의 종언』, 문예출판사, 1993.
 사르트르, 박정태 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학사, 2007.

3. 논문

- 김동석, 「김남천의 <1945년 8.15>연구」,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51~173쪽.
 김외근, 「새나라 건설을 위한 노력과 좌절-김남천의 <1945년 8.15>」, 『한국현대소설탐구』, 역락, 2002, 105~122쪽.
 김한식, 「김남천 장편소설 <1945년 8.15>연구」, 『현대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7, 229~248쪽.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2003, 183~214쪽.
 서영인, 「김남천의 해방기 문학해석을 위한 시론-〈1945년 8.15〉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4, 2006, 251~276쪽.
 손미란, 「김남천의 1945년 8.15 연구-〈사랑의 수족관〉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4, 2009, 181~211쪽.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2009.
 허병식, 「직분의 윤리와 교양의 종결」, 『현대소설연구』 32, 2006, 53~74쪽.

[Abstracts]**Changes In the Age of Liberation and Destiny of Educated Women**

-Study on Kim, Nam-Cheon's Novels <The Aquarium of Love> and <August 15, 1945>-

Kim, Jue-lee

Kim, Nam-cheon's novels <The Aquarium of Love> and <August 15, 1945> groped for positive human figures in the confusion of World War and Libe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se texts at the point that what means the heroines' culture and practice. We aims to explain the meaning of private love and public practice that Yi, Kyeong-hee, daughter of a munitions plutocrats intimate Japanese Empire and Bark, Mun-kyeong, daughter of a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against Japanese Empire showed at the last years of Imperial domination and at the days of just liberation. In <The Aquarium of Love>, the heroine Yi, Kyeong-hee's love involves not rejection and criticism on her father as a munitions plutocrats intimate Japanese Empire but criticism and enlightenment on her lover, an intellectual as a nihilist. The other side, in <August 15, 1945> the heroine Bark, Mun-kyeong's love appears that she cuts off her father, a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through expropriating from her lover's marxism ideology lack criticism. In these novels, the heroines' lovers are both technocrats and intellectuals so they are estranged from their techincal jobs with debt perception on the liberation society. With this change, they show patriarchal figures that Kim, Gwang-ho oppressed his wife's passion for public practice and Kim, Ji-won destroyed his lover's private desire for love. In <August 15, 1945>, Kyeong-hee's public passion changed private acts and Mun-kyeong's

private desire changed public practice, so Kyeong-hee's critical culture becomes a depravity case and Mun-kyeong's culture becomes an adaptation case. In their worlds, public passion for political practice was not in accord with private desire for love. An educated woman with desire was braked, became a depraved one or a non-sexual one.

Key words : an educated woman, age of liberation, technocrat and marxist, public passion for political practice, private desire for love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